

2015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6차(6월 접수분) 심사평

<2015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6차>

대관료 지원사업은 국내 공연단체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공연 대관료의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 공연은 전문단체가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하며, 공연장과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 라이선스 뮤지컬, 동일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연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등은 제외 된다. 또한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단체, 협회,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지원을 받고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심의는 공연작품의 예술성(30%), 공연단체의 역량(2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10%), 신청사업의 행정 적격성(40%)를 기준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총 123건 이 신청되어 51건이 선정되었다.

금회 대관료지원사업의 선정비율은 41.4%로 그 동안의 평균선정비율(지난 1~5월의 평균 42.6%)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는 좀 더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지원신청단체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 심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했다.

작품의 예술적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공연 주체와 사업 신청주체가 다른 공연, 공연장과 함께하는 기획공연, 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뮤지컬의 경우 500석 이상에서 하는 공연 등은 행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관료 지원사업이 민간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대관료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